

# 경남 산청의 서원판본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Publications of Seowons in Sancheong, Gyeongsangnam-do

윤 상 기 (Yun, Sang-Ki)\*\*

## ◁ 목 차 ▷

- |                  |           |
|------------------|-----------|
| 1. 들어가면서         | 4.2 西溪書院  |
| 2. 산청의 사정        | 5. 판본의 성격 |
| 3. 산청의 서원에 대한 개관 | 6. 나오면서   |
| 4. 서원판본          | <참고문헌>    |
| 4.1 德川書院         |           |

## < 초 록 >

이 글은 경남 산청군에 所在했거나 소재한 적이 있었던 서원들에서 1910년까지 刊印했거나 간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판본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해당되는 서원은 모두 5개이다. 이들 중 2개 서원에서 5종의 판본을 간인했고, 7종의 판본을 간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간인사실이 확실한 것은 德川書院에서 간인한 『南冥先生學記類編』, 『南冥先生集』(1622), 『南冥先生集』(1671頃), 『南冥先生文集』(1702) 및 『南冥先生文集』(1764跋)이고, 간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덕천서원의 『守愚堂實記』, 『南冥先生文集』(1799-1897) 및 『南冥先生文集』(1824-1897)과 西溪書院의 『德溪先生文集』(1663-18c초), 『思湖先生文集』, 『德溪先生文集』(1829序) 및 『守吾堂先生實紀』이다. 이들 판본들에 대해서는 서지사항을 정밀기술하고 서원판본임을 밝히거나 간인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리고 전체 12종의 판본들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들을 밝혀냈다.

첫째, 集部의 別集類가 9종이고 史部의 傳記類가 2종, 子部의 儒家類가 1종으로 集部의 別集類가 대다수이다. 둘째, 모두 목판본이다. 셋째,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3개 세기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간인되었다. 넷째, 10종의 판본의 저자 혹은 피전자가 관련 서원의 배향자 본인들이고 2종의 판본의 저자 혹은 피전자만 배향자의 친족들로서, 모두 관련 서원의 배향자들과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다.

要語: 산청, 서원판본, 德川書院, 西溪書院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과제번호 2012AA019).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skyoon@deu.ac.kr)

접수일: 2012년 8월 30일 최초심사일: 2012년 9월 5일 심사완료일: 2012년 9월 15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ublications, either published or assumed to be published by seowons located in Sancheong, Gyeongsangnam-do by the year 1910.

Out of the five seowons, two published five books and might have published seven more books. The books confirmed to be published by seowon are as follows: *Nammyeong-seonsaeng haggi-yupyeon*, *Nammyeong-seonsaeng jib*(1622), *Nammyeong-seonsaeng jib*(1671), *Nammyeong-seonsaeng munjib*(1702), and *Nammyeong-seonsaeng munjib*(epilogue in 1764) by Deogcheon Seowon. And *Suu-dang silgi*, *Nammyeong-seonsaeng munjib*(1799-1897), and *Nammyeong-seonsaeng munjib*(1824-1897) by Deogcheon Seowon and *Deoggye-seonsaeng munjib*(1663-early 18c), *Saho-seonsaeng munjib*, *Deoggye-seonsaeng munjib* (forword in 1829), and *Suo-dang silgi* by Seogye Seowon are assumed to have been published respectively. In this research, bibliographical information of these books have been described in detail and it is also confirmed that they were published either certainly or possibly by seowons.

An analysis of these twelve books show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nine books are categorized into individual works of the class of Collection of Works, two were categorized into biography of the class of History, and one were categorized into confucianism of the class of Fellow philosophers and scholars.

Second, they were all printed with wooden printing blocks.

Third, twelve books were published evenly during three centuries from 17th century to 19th century.

Forth, they are all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the worshipers of related seowon.

Key words: Sancheong, Publications of Seowon, Deogcheon Seowon, Seogye Seowon

## 1. 들어가면서

조선시대에 사립교육기관의 큰 축을 이루었던 서원은 기본적으로 유생들이 모여 강당에서 학문하는 강학의 기능과 祠宇에 선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 드리는 제향의 기능을 갖추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도서관적 기능과 향촌자치 운영기구로서의 기능도 함께 갖추고 있었다.<sup>1)</sup> 그리고 이러한 기능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서적들이 필요했으며, 필요한 서적을 조달하는 방법 중 하나로 서원 자체의 간행 및 인쇄가 있었다.

필자는 근래에 조선조의 서원판본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이래, 그동안 여러 차례 연구 결과를 발표해 왔다. 지금까지 필자가 발표한 것으로 개별 서원의 판본으로는 경주 玉山書院, 산청 德川書院 및 밀양 禮林書院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 있고,<sup>2)</sup> 지역 소재 서원들의 판본으로는 함양, 진주 및 함안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 있다.<sup>3)</sup> 그리고 藏板記錄을 이용하여 경남지역 서원들의 판본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살펴본 바도 있다.<sup>4)</sup> 이 연구는 이러한 서원판본에 대한 일련의 연구의 하나로 경남 산청의 서원판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연구 대상으로 삼은 판본은 1910년 庚戌國恥 이전에 당시 산청군에 所在했거나 소재한 적이 있었던 서원에서 刊印한 것으로 한정한다. 간인의 하한 시기를

- 1) 윤상기, “경남 함안의 서원판본에 대한 연구,” 『書誌學研究』 第44輯(2009. 12), 303.
- 2) ① 윤상기, “慶州 玉山書院版本에 관한 연구,” 『東義論集』(東義大學校) 第38輯, 人文·社會科學篇(2003. 2), 77-95.  
 ② 윤상기, “山淸 德川書院版本考,” 『東義論集』(東義大學校) 第40輯, 人文·社會科學篇(I)(2004. 2), 423-443.
- ③ 윤상기, “密陽 禮林書院版本考,” 『인문학과 문화』(동의대학교 문화콘텐츠연구소) (2004. 2) (문화콘텐츠연구-9), 367-402.
- 3) ① 윤상기, “경남 함양군의 서원판본에 대한 연구,” 『書誌學研究』 第32輯(2005. 12), 237-271.  
 ② 윤상기, “경남 진주의 서원판본에 대한 연구,” 『書誌學研究』 第40輯(2008. 9), 295-322.  
 ③ 윤상기(2009. 12), 301-330.
- 4) ① 윤상기, “『鏤板考』에 수록된 경남지역 서원 藏板: 서원 刊板을 대상으로,” 『書誌學研究』 第50輯(2011. 12), 187-230.  
 ② 윤상기, “『鏤板考』에 수록된 경남지역 서원 藏板: 서원 未刊板과 불확실판을 대상으로,” 『書誌學報』 第38輯(2011. 12), 5-52.

1910년 경술국치로 제한한 것은 조선 말기에 흥선대원군에 의한 대규모의 서원·사우의 철폐가 있고 난 후, 주로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에 복설 또는 신설된 서원들은 근대화와 서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에 영향을 받아 전통적인 서원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시기에 간인된 서적 역시 서원 본래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판본의 간인처에 대한 한계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白雲洞書院<sup>5)</sup>에서 비롯된 조선의 서원은 조선 후기에 와서는 인물위주로 서원이濫設되어 사우와의 구별이 모호해진다. 또한 창설된 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서원의 기능과 명칭상의 변화를 겪는 경우도 있었다.<sup>6)</sup> 본 연구는 서원판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술국치가 있는 1910년 이전에 설립된 서원을 대상으로 하되, 창설 때부터 1910년 경술국치까지의 기간 내에 서원으로 불렸던 시기에 간인된 판본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분명한 간인 기록은 없지만 각종 책판목록이나 읍지의 장관기록 혹은 기타 기록들의 분석을 통해 1910년 경술국치 이전에 서원에서 간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판본들도 참고로 함께 언급하겠다.

## 2. 산청의 사정

현재의 산청군은 지리적으로 경상남도의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함천군과 의령군에 접하고, 서쪽으로는 함양군과 하동군, 남쪽으로는 진주시, 북쪽으로는 거창군에 접한다. 주위는 대부분이 준엄한 산령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특히, 서쪽으로는 천왕봉을 기점으로 한 지리산맥이 남북으로 질주하여 하동군 및 함양군과의 경계를 이루고, 함천군과는 백운산의 지봉인 황매산이 두 군의 분수령을 형성하고 있다.<sup>7)</sup>

---

5) 현재의 紹修書院.

6) 윤상기(2005. 12), 239-240.

7) ‘산청군 - 청정골 산청 - 산청소개 - 역사’ [cited 2012. 8. 15].

<[http://www.sancheong.ne.kr/06about/02\\_01.asp](http://www.sancheong.ne.kr/06about/02_01.asp)>.

산청군의 연혁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8)</sup>

단성면 강누리 선동에서 발굴된 고인돌 유적을 통해 늦어도 신석기 말기부터는 산청군 지역에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한시대에는 변한의 땅이었고, 삼국시대인 5~6세기경에는 가야계열의 부족국가가 성립되었다가 신라에 통합되었다.

남북국시대 동안 통일신라의 知品川縣, 赤村縣, 闕支郡이었다가 경덕왕(통일신라) 16년(757)에 전국적인 지방편제가 행하여질 때 궐지군은 闕城郡으로, 지품천현은 山陰縣으로, 적촌현은 丹邑縣으로 개칭하여 산음현과 단음현을 궐성군 소속의 領縣으로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성종(고려) 14년(995)에 궐성군을 江城縣으로 개칭 강등하였다가 뒤에 江城郡으로 승격하였다. 그리고 단음현은 단계현으로 개칭하였다. 현종(고려) 9년(1018)에 강성군은 晋州牧에, 산음현과 단계현은 陝州<sup>9)</sup>에 소속되었다. 그 후 공양왕(고려) 2년(1390)에는 산음현과 강성현에 監務<sup>10)</sup>를 임명함으로써 진주목과 합주의 관할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현이 되게 하고, 단계현을 강성현의 영현으로 복귀시켰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정종 1년(1399)에 강성현에 永善의 溟珍縣을 병합하여 珍城縣으로 개칭하였다. 태종 13년(1413)에 산음현을 현재의 산청읍 자리로 옮긴다. 세종 14년(1432)에는 명진현이 복귀됨에 따라 단계현과 강성현을 丹城縣으로 통합시켰다. 선조 32년(1599)에 단성현을 폐하고 그 일부를 산음현으로 편입시켰다가 광해군 5년(1613)에 다시 단성현을 복구시켰다. 영조 43년(1767)에는 산음현을 山淸縣으로 개칭하였다. 그 후 건양 원년(1896)에 칙령 제36호로 산청현과 단성현을 각각 군으로 개편하였다.

대한제국시대인 광무 10년(1906)에는 칙령 제49호로 진주군에서 巴只面, 栢谷

8) 주로 '산청군 - 청정골 산청 - 산청소개 - 역사' [cited 2012. 8. 15] <[http://www.sancheong.ne.kr/06about/02\\_01\\_02~06.asp](http://www.sancheong.ne.kr/06about/02_01_02~06.asp)>을 참고하였으며, 그 외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용하여 보충하였다.

9) 경상남도 합천지역의 옛 지명.

10) 현감을 두지 않은 작은 현의 행정책임자.

面, 金萬面, 沙月面, 三壯面, 矢川面의 6면을 분할 받아 산청군에 통합시켰다.

일제강점시대인 1914년에는 단성군을 산청군에 통합시켰다.

대한민국시대에 들어와서는 1979년 산청면이 산청읍으로 승격되었고, 1983년에는 하동군 옥종면 중태리를 시천면에 편입시켰다. 현재의 산청군은 산청읍의 1읍과 차황면, 오부면, 생초면, 금서면, 삼장면, 시천면, 단성면, 신안면, 생비량면 및 신등면의 10읍을 관할하고 있으며, 인구는 2012년 7월 현재 35,615명이다.<sup>11)</sup> 그리고 2010년도 현재의 통계에 의하면, 면적은 794.74km<sup>2</sup>로 경상남도 전체 면적의 7.5%를 차지하며 8개 시 10개 군 중에서 네 번째로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sup>12)</sup>

한편, 조선시대 산청에 거주했던 것으로 조사된 氏族들과 이 지역 서원의 배향자와의 관계를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在地氏族의 파악은 기준 시기인 1910년에 비교적 가까운 순조 32년(1832)경부터 고종 8년(1871) 사이에 편찬된 20책본 『慶尙道邑誌』<sup>13)</sup>의 분석을 기본으로 하였다. 그리고 그 이전 시기의 재지씨족 상황은 단종 2년(1454)에 편찬된 『世宗實錄地理志』와 중종 23년(1528)에 校誤와 증보에 착수하여 同王 25년(1530)에 끝마친 『新增東國輿地勝覽』을 이용하였다. 그 외에 보완을 위하여 1930년 국세조사의 결과를 갖고 조사, 연구한 『朝鮮의 姓』<sup>14)</sup>을 비롯하여 각종 자료들을<sup>15)</sup> 이용하였다.

11) '산청군 - 청정골 산청 - 산청소개 - 일반현황' [cited 2012. 8. 15].

<<http://www.sancheong.ne.kr/program/population/outPopulation.asp?amode=&page=&year=2012&month=7>>.

12) '홈 - 경남의 통계 - 경남 통계연보' [cited 2012. 8. 15].

<[http://stat.gsnd.net/jsp/sub02/02\\_02.jsp](http://stat.gsnd.net/jsp/sub02/02_02.jsp)>.

13)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邑誌』, 二 慶尙道 編②, 影印本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2).

14) 『朝鮮의 姓』, 複製本 (서울: 民俗苑, 1989).

15) ① 이수건, 『한국의 성씨와 족보』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한국의 탐구 25).

② 李樹健,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서울: 一潮閣, 1995), 4-7, <表 1-1>.

③ 박병련 외, 『南冥學派와 嶺南右道の 士林』 (서울: 예문서원, 2004).

<표 1> 조선시대 산청의 재지씨족과 배향자를 둔 서원

성	본관	배향자를 둔 서원(배향자 수)	성	본관	배향자를 둔 서원(배향자 수)
姜	?		吳	咸陽	西溪書院(1), 西湖書院(2)
金	龍宮		禹	丹陽	
文	丹城		尹	山陰	
閔	驪興	大浦書院(2)	李	丹城	
朴	潘南	西湖書院(1)	林	?	
裊	慶州	平川書院(1)	曹	皆品	
	金海	平川書院(2)		山陰	
徐	山陰			昌寧	德川書院(1)
宋	?		陳	?	
沈	山陰			皆品	
楊	山淸		崔	山淸	
余	山陰			和順	德川書院(1)
吳	皆品		洪	?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 산청의 재지씨족들은 본관이 파악되지 않은 성까지 포함하여 모두 26貫 20姓이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들 중 도합 7관 6성이 서원의 배향자를 배출하여, 咸陽吳氏는 2개 서원에 3명, 驪興閔氏와 金海裊氏는 1개 서원에 2명씩, 潘南朴氏, 慶州裊氏, 昌寧曹氏 및 和順崔氏는 1개 서원에 1명씩의 배향자를 각각 두고 있다.

산청의 대표적 인물들을 살펴보면, 고려시대에는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가져온 三憂堂 文益漸(1329-1398), 사위인 문익점과 함께 목화를 재배, 번식시킨 退軒 鄭天益(?-?), 말년에 산청에서 숨어 살았던 杜門洞 72賢의 한 사람인 農隱 閔安富(?-?) 등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말년에 산청에 山天齋를 지어 강학한 南冥 曹植(1501-1572), 조식의 수제자인 德溪 吳健(1521-1574), 경남 거창에서 태어났으나 성장 후 주로 산청에서 의술활동에 전념한 新淵堂 柳以泰(1652-1715)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그 후에는 蘆沙 奇正鎭(1798-1879)의 학문을 계승한 江右地域의 대표적 인물 중 한 사람인 松山 權載奎(1870-1952), 조선유학계의 마지막 巨儒였던 俛宇 郭鍾錫(1864-1919), 8년 長坐不臥와 10년 洞口不出로 유명한 禪僧인 退翁 性澈(1912-1993) 등이 있다.

### 3. 산청의 서원에 대한 개관

1910년까지 당시의 산청군 영내에 한 때라도 존속했던 서원은 모두 5개로 <표 2>와 같다.

<표 2> 산청군의 서원들

서원명	창건년도* /사액년도	배향자	비고**
大浦書院	숙종 19(1693)	閔安富 閔綏	고종 5년(1868) 훼손 고종 11년(1874) 중건
德川書院	선조 9(1576) /광해군 1(1609)	曹植 崔永慶	德山書院으로 창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전소 선조 36년(1603), 숙종 16년(1690), 정조 20년(1796)에 각각 중수 고종 8년(1871) 훼손
西溪書院	선조 39(1606) /숙종 3(1677)	吳健	고종 5년(1868) 훼손
西湖書院	숙종 27(1701)	吳長 吳憫 朴文樞	고종 5년(1868) 훼손
平川書院	숙종 20(1694)	裒玄慶 裒愼忱 裒世謙	고종 5년(1868) 훼손

\* 창건년도는 서원으로 창건한 때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사우로 창건하여 서원으로 승격되었을 경우에는 사우의 창건년도를 표시하였다.

\*\* 1910년까지의 상황만 요약하였다.

산청지역에서는 선조 9년(1576)에 설립된 德川書院을 시작으로 선조조에 2개, 숙종조에 3개의 서원이 각각 세워졌다. 사액을 받은 서원은 덕천서원과 西溪書院이며, 나머지 3개 서원은 미사액 서원들이다.

### 4. 서원판본

1910년 경술국치 이전에 서적을 간인했거나 간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서원들과 그 판본들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3에서 살펴본 산청의 5개 서원들 중 1910년

경술국치 이전에 서적을 한 번이라도 간인했거나 간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은 덕천서원과 서계서원 두 곳인데, 두 곳 다 사액서원이다. 기술방법은 먼저 서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 판본들에 대해서는 상세한 목록을 기술한 후 간략한 해제와 더불어 간인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다만, 이 논문에서 경남 산청의 전체 서원판본을 기술하는데 필요하나 필자가 前稿들을 통해 이미 부분적으로 자세히 연구 발표한 사실에 대해서는 중언을 피하기 위하여 수정, 보충 및 요약하는 것으로 대신한다.<sup>16)</sup> 간인사실이 확실한 판본들을 먼저 설명하고, 간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판본들은 그 뒤에 따로 언급하겠다.

#### 4.1 德川書院

현위치: 慶尙南道 山淸郡 矢川面 院里 193-5번지

창 건: 宣祖 9년(1576)

배향자: 曹植(1501-1572) · 崔永慶(1529-1590)

선조 9년(1576)에 守愚(堂) 崔永慶(1529-1590) · 覺齋 河沆(1538-1590) · 寧無成(齋) 河應圖(1540-1610) · 撫松(軒) 孫天祐(1533-1594) · 潮溪 柳宗智(1546-1587) 등이 스승인 南冥 曹植(1501-1572)을 추모하기 위해, 그가 명종 16년(1561)에 학문연구와 후진양성을 세웠던 山天齋가 서로 바라보이는 九谷山

16) 4.1 德川書院에서는 덕천서원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를 비롯하여, 덕천서원판본 5종과 덕천서원판본일 가능성이 있는 판본들 중 ② 南冥先生文集의 기술에, 4.2 西溪書院에서는 서계서원판본일 가능성이 있는 판본들 중 ① 德溪先生文集의 기술에 이용되었다. 이용방법은 대체로 분석하고 증명하는 과정은 생략하고 근거와 결과만 요약하되 오류가 있거나 추가로 밝혀진 사실이 있으면 수정 혹은 보충하였으며, 또한 이 논문의 목적에 맞게 내용을 추가하거나 재편집하였다. 이용된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① 윤상기(2004. 2), 423-443.

② 윤상기, “『鏤板考』에 수록된 경남지역 서원 藏板: 서원 刊板을 대상으로,” (2011. 12), 187-230.

③ 윤상기, “『鏤板考』에 수록된 경남지역 서원 藏板: 서원 未刊板과 불확실판을 대상으로,” (2011. 12), 5-52.

기슭 蓮花峰 구릉지인 현재의 자리에 창건하고 지명을 따서 ‘德山書院’이라 명명하였다. 서원이 있는 矢川面 院里의 당시 지명은 德山 薩川里였다. 덕산서원은 건립 당시 玉山書院, 陶山書院과 함께 三山書院의 하나로 불린 3대 서원이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전소된 후, 선조 35년(1602)에 茅村 李澐(1541-1613)·栢谷 陳克敬(1546-1617)·滄州 河愷(1563-1624) 등이 힘을 합하여 중건했다.<sup>17)</sup> 선조 36년(1603)에는 최영경을 추배하였는데,<sup>18)</sup> 최영경은 조식의 문인으로서 이 서원을 건립한 주도적 인물이기도 하다.<sup>19)</sup> 광해군 1년(1609)에는 ‘德川’이라는 사액을 받아 사액서원으로 승격되었다. 이후 이 서원은 영남우도 道學과 남명학파의 본산이 되었다.<sup>20)</sup> 숙종 16년(1690)과 정조 20년(1796)의 두 차례의 중수를 거쳐 70여년을 내려오다가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고종 8년(1871)에 훼철되었다.<sup>21)</sup> 훼철 이후 1918년부터 1984년까지 단계적으로 중건하였다.

덕천서원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산청군 시천면은 본래 진주군 지역이었으나 1906년에 산청군에 편입되었다.

1974년 2월 16일에 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89호로 지정되었다가 1984년 1월 26일에 사적 제305호로 지정되었다.

이 서원에서 간인한 것이 확실한 판본으로는 다음의 5종이 있다.

① 「南冥先生學記類編」

南冥先生學記類編 / 曹植(朝鮮) 著 ; 鄭仁弘(朝鮮) 編. -- 木板本(初刊).

-- [晉州] : 德川書院, 光海君 9(1617)

17) 李昌鎬 편, 金尙祚 역, 『국역(國譯) 진양지(晉陽誌) (II)』 ([진주] : 진주문화원, 1986), 12.

18) 吳二煥, 『南冥學派研究』 上卷 (진주: 남명학연구원출판부, 2000), 140.

19)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지음, 『서원, 한국 사상의 숨결을 찾아서』 (서울: 예문서원, 2000) (동양문화산책 10), 64.

20)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지음(2000), 66.

21) 덕천서원의 훼철 시기에 대하여는 고종 7년(1870)·8년(1871)·9년(1872)설 등 서로 다른 기록들이 있으나, 여기서는 8년설을 따른다. 자세한 내용은 오이환, “『南冥集』 重刊本の 성립,” 『철학논총』(새한철학회), 제32집 제2권(2003. 4), 19, 주)56을 참조.

2卷2册 : 插圖, 四周雙邊 半郭 22.6 × 19.0 cm, 有界, 11行21字 注雙行, 內向2葉花紋魚尾

版心題: 學記

刊記: 萬曆丁巳(1617)秋德川書院刊

敍: 萬曆四十五年(1617)…鄭仁弘…

南冥 曹植(1501-1572)이 평생 독서한 것을 筭記하고 作圖한 것이 學記였다.<sup>22)</sup> 이것을 제자인 來庵 鄭仁弘(1535-1623)이 『近思錄』의 체제로 類編하여 광해군 9년(1617)에 『南冥先生學記類編』이란 제목으로 간행하였다.<sup>23)</sup>

권말에 있는 간기를 통해 광해군 9년(1617) 가을에 덕천서원에서 간행했음을 알 수 있다. 간사지는 당시 德川書院으로 불리던 곳은 이곳뿐이며 또한 저자인 조식을 배향하고 있었다는 점, 관례상 배향자와 관련된 책을 간인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 서원의 소재지인 시천면이 광무 10년(1906)에는 진주목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점, 『林園十六志』·『鏤板考』·『嶠南册錄』·『五車書錄』·『完營册板目錄』 등의 책판목록에 진주에 장판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진주임이 분명하다.<sup>24)</sup>

## ② 『南冥先生集』

南冥先生集 / 曹植(朝鮮) 著. -- 木板本(改校). -- [晋州]: 德川書院, 光海君14(1622)

4卷3册 : 插圖, 四周雙邊 半郭 22.3 × 16.1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內向2葉花紋魚尾

22) 曹植 著; 曹垣淳 編, 『南冥先生文集』, 11卷6册, 木板本 ([山淸]: [山天齋], [光武 元(1897) 頃]), <重刊南冥先生文集跋>[李晚寅], 張1右.

“若夫先生之有學記 只是讀書時筭錄 ….”

23) 金侖壽, “『南冥集』의 册板과 印本の 系統,” 『南冥學研究』 第2輯(1992), 225.

24) 윤상기, “『鏤板考』에 수록된 경남지역 서원 藏板: 서원 刊板을 대상으로,” (2011. 12), 202-206.

版心題: 南冥集

刊記: 天啓壬戌(1622)仲秋德川書院改校

序: 萬曆甲辰(1604)八月日 門人嘉善大夫前同知府事瑞山鄭仁弘謹序

南冥 曹植(1501-1572)의 시문집이다.

이 판본에 앞서, 조식의 문집은 선조 35년(1602)에 제자인 정인홍에 의해 처음으로 편집되어<sup>25)</sup> 선조 35년(1602)<sup>26)</sup> 혹은 선조 37년(1604)에<sup>27)</sup> 해인사에서<sup>28)</sup> 『南冥先生集』 3권으로 초간되었다. 중간본은 정인홍의 문인인 草亭 許從善(1563-1642)과 拙庵 柳永詢(1552-1630)에 의해 선조 37년(1604)<sup>29)</sup> 혹은 선조 39년(1606)에<sup>30)</sup> 역시 해인사에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삼간본은 중간본을 考校하고 보유 1권을 추가하여 광해군 1년(1609)에<sup>31)</sup> 해인사에서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서 네 번째로 간행된 판본이 여기에서 목록한 덕천서원판본으로 당시 덕천서원 원장이었던 하징이 주도하고<sup>32)</sup> 유영순의 도움을 받아 간행되었는데,<sup>33)</sup> 내용

25) 曹植 著, 『南冥先生集』, 3卷1册, 木板本 ([陝川]: [海印寺], [宣祖 35(1602)-37(1604)頃]), <南冥先生集序>[鄭仁弘].

“先生既沒 收錄得若干篇 亦出於後輩 傳誦之餘 隨聞隨記 頗有訛誤 是誠後學之一大恨也 就爲一通 鳩工鋟梓.”

26) ① 吳二煥, “南冥集板本考( I ): 來庵刊本을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韓國思想史學會) 第1輯(1987), 173-178.

② 金侖壽, “南冥集 板本 研究上的 爭點,” 『南冥學研究』, 第6輯(1996), 17-21.

27) ① 金侖壽(1992), 208-210.

② 金侖壽(1996), 17-21.

28) 曹植 著, 『南冥先生集』, 4卷3册, 木板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光海君 1(1609)), <跋>[文景虎].

“向在壬寅年間 我來庵先生 與一二同志 慮先師遺響無傳 收拾詩文若干篇 入梓于伽倻之海印寺.”

29) 吳二煥(1987), 178-180.

30) 金侖壽(1992), 208-213.

31) 金侖壽(1992), 213.

32)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지음(2000), 85-86.

33) ‘문화재청 | 문화유산정보 > 문화재검색 > 문화재검색’ [cited 2012. 8. 30].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

이 改校되고 追錄이 덧붙여졌다. 권말의 간기를 통해 광해군 14년(1622) 8월에 덕천서원에서 개교했음을 알 수 있다. 간기에 간사지 표시는 없지만 『南冥先生學記類編』 편에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서원에서 간행했음이 분명하므로 간사지는 진주가 되겠다.

조식의 문집은 삼간본까지는 모두 합천의 해인사에서 판각하고 보관한 것으로 보이나, 이 판부터는 줄곧 덕천서원에서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sup>34)</sup> 그러나 이 후에 간행된 문집들 중에는 덕천서원에서 간행했다는 분명한 기록을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 심증만 가고 구체적 기록이 없는 판본에 대해서는 덕천서원에서 간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판본으로 따로 다루었다.

③ 『南冥先生集』

南冥先生集 / 曹植(朝鮮) 著. -- 木板本(改校). -- [晉州]: [德川書院], [顯宗 12(1671)頃]

4卷3冊: 插圖, 四周雙邊 半郭 22.3 × 16.1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內向2葉花紋魚尾

南冥 曹植(1501-1572)의 시문집이다.

현종 11년(1670) 10월 7일에 執義였던 默齋 申命圭(1618-1688) 등이 조식의 문집에서 정인홍 관계 문자를 삭제하자고 주청하자, 임금이 이를 운허하였다.<sup>35)</sup> 그런데 바로 전 해인 현종 10년(1669) 2월 29일에 尤菴 宋時烈(1607-1689)이 德川院儒 崔綱(?-?)의 訴請에 답한 서신의 별지에는 조식의 문집에 대한 6조목

3\_01&VdkVgwKey=21,01640000,38>.

34) 윤상기, “『鏤板考』에 수록된 경남지역 서원 藏板: 서원 刊板을 대상으로,” (2011. 12), 208.

35) 『顯宗改修實錄』 11年(1670) 10月 7日(辛卯)條.

“嶺南晉州地 先正臣曹植書院 有曹植文集 而集中附錄 盡是賊臣仁弘 醜辱先正臣李彥迪·李滉 及昏朝凶賊輩 尊崇仁弘之文字也 數十年前 有一士人輩 慨然於此 乃取而斲毀之 一種 異議者 河洛·河達源[遠]·尹承慶等 深懷憤恚 卽入院中 招工復刊 又罰其毀板士子 遐方惡習 誠極寒心 請令道臣 亟取曹植文集附錄中 仁弘諸賊醜悖文字 盡爲毀去 仍治河洛等推尊凶賊之罪.”

으로 된 釐正作業의 대략적인 지침이 실려 있다. 당시 경상감사로 재임한 송시열의 문인인 認齋 閔著重(1625-1677)은 송시열이 이정의 지침을 정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왕의 윤허가 내렸으니 왕명 하달 기간을 거쳐 현종 12년(1671)에는 道臣의 책임으로 소략하게나마 時諱釐正의 補刻 작업을 완수하였을 것이다.<sup>36)</sup>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자료실에는 이 판본의 복사본이 있어서 당시 印役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판본에서는 정인홍 관계 부분의 수정 및 삭제는 물론, 권말에 있던 ‘天啓壬戌仲秋德川書院改校’라는 기록도 삭제되고, 정인홍의 신도비문 대신 思湖 吳長(1565-1616)의 <德川書院上樑文>이 맨 뒤에 자리 잡고 있다.<sup>37)</sup>

보각 및 인출 작업은 이정작업의 대략적인 지침이 실려 있는 송시열의 답신이 덕천원유의 소청에 대한 답신인 점과 당시 책판이 덕천서원에 보관되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민시중의 지시 하에 덕천서원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sup>38)</sup>

④ 『南冥先生文集』

南冥先生文集 / 曹植(朝鮮) 著. -- 木板本(重刊). -- [晋州] : [德川書院], [肅宗 28(1702)]

文集5卷5册, 別集9卷3册, 共8册 : 插圖, 四周雙邊 半郭 22.3 × 18.9 cm, 有界, 11行21字 註雙行, 內向2葉花紋魚尾

學記跋(南冥先生文集 卷4末) : 鄭蘊. [再書]

學記類編後跋(南冥先生別集 卷2末) : 鄭蘊. [再書]

南冥先生別集跋(南冥先生別集 卷2末) : 崇禎丙子(1636)二月日後學高陽朴網謹識

南冥先生別集跋(南冥先生別集 卷2末) : 崇禎十三年庚辰(1640)日南至後

36) 金侖壽(1992), 218-219.

37) 金侖壽(1992), 220.

38) 윤상기, “『鑲板考』에 수록된 경남지역 서원 藏板: 서원 刊板을 대상으로,” (2011. 12), 210.

學晉陽河弘度謹跋

南冥先生別集(南冥先生別集 卷2末): …索跋語于[趙]任道…

南冥 曹植(1501-1572)의 시문집이다.

숙종조에 이르러 조식의 문집을 전면 개편, 개간한 『南冥先生文集』 5권5책과 無悶堂 朴綱(1583-1640)이 편찬한 『山海師友淵源錄』 9권을 改題하여 처음 간행한 『南冥先生別集』 9권3책이 따로 간행되었으나, 한 질로 편성되어 유통되었다. 이런 연유로 둘을 합하여 『南冥先生合集』이라 부르기도 한다.<sup>39)</sup> 별집은 숙종 28년(1702)에 초간된 것으로 밝혀졌고,<sup>40)</sup> 『南冥先生文集』은 이보다 조금 앞서 증간한 것으로 짐작되나 거기에 대한 근거 문헌은 없다.

이 판본에 간기는 없지만, 문집의 권3, 4에 광해군 9년(1617)에 덕천서원에서 새긴 『南冥先生學記類編』 상하의 책판 대부분을 그대로 이용했고, 또한 숙종 28년(1702) 이 판본이 간행된 직후에 東岡 金字顯(1540-1603) 측에서 별집 刊本을 보고 시정을 요구하는 通文<sup>41)</sup>을 보내자, 박인 측의 龍淵書院이 덕천서원에 박인의 편찬을 옹호하고 改刻을 반대하는 通문<sup>42)</sup>을 보낸 바가 있으므로,<sup>43)</sup> 이 판본을 덕천서원에서 간행한 것으로 단정 지어도 좋을 것이다.

⑤ 『南冥先生文集』

南冥先生文集 / 曹植(朝鮮) 著. -- 木板本(重刊). -- [晉州]: [德川書院], 英祖 40(1764)跋

文集5卷5冊, 別集9卷3冊, 共8冊: 插圖, 四周雙邊 半郭 22.3 × 18.9 cm, 有界, 11行21字 註雙行, 內向2葉花紋魚尾

39) 金侖壽(1992), 220.

40) 오이환(2003), 5.

41) 星州通文.

42) 『卞誣錄』, 筆寫本, 第26項 <龍淵書院通德川書院文 壬午十一月十五日>, 金侖壽(1992), 227에서 재인용.

43) 金侖壽(1992), 227.

南冥先生別集跋: 崇禎丙子(1636)二月日後學高陽朴綱謹識

南冥先生別集跋: 崇禎十三年庚辰(1640)日南至後學晉陽河弘度謹跋

南冥先生別集跋: …後學趙任道謹識

南冥先生別集校正跋: 崇禎三甲申(1764)孟冬…金墩…

南冥先生別集校正跋: 崇禎三甲申(1764)孟秋日後學泰安朴挺新書

南冥 曹植(1501-1572)의 시문집이다.

영조 40년(1764)경에 默齋 金墩(1702-1770), 漁隱 朴挺新(1705-1769) 및 愧窩 河大觀(1698-?)이 숙종 28년(1702)의 판에서 문집의 책판은 거의 바꾸지 않고 별집의 책판을 많이 교정하여 개간한 것인데,<sup>44)</sup> 주로 연보를 많이 고쳤다.

이 판본에 간기는 없지만, 개간에 이용된 직전 책판이 덕천서원에서 판각된 것이 확실하므로 이 판본 또한 덕천서원에서 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간행년은 영조 40년(1764) 10월에 김돈이 쓴 <南冥先生別集校正跋>의 작성시기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sup>45)</sup>

한편, 이 서원에서 간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판본으로는 다음의 3종이 있다.

① 『守愚堂實記』

守愚堂實記 / 梁天翼(朝鮮) 編. -- 木板本. --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肅宗 30(1704)頃]

2卷2冊: 四周單邊 半郭 22.0 × 17.0 cm, 有界, 10行19字 註雙行, 內向2葉 花紋魚尾

被傳者: 崔永慶(1529-1590)

跋: 崇禎甲申後庚辰(1700)正月日後學龍城梁天翼謹跋

44) 오이환(2003. 4), 5와 金侖壽(1992), 226-229 참조.

45) 윤상기, “『鏤板考』에 수록된 경남지역 서원 藏板: 서원 刊板을 대상으로,” (2011. 12), 213-214.

守愚(堂) 崔永慶(1529-1590)의 전기를 기록한 실기이다.

최영경의 曾孫婿인 春窩 梁天翼(1638-1711)이 처남인 崔廷奭(?-?)의 부탁을 받고<sup>46)</sup> 최영경에 관한 사실을 모아 『文獻公實紀』를 본떠 정리하여 펴낸 책이다.<sup>47)</sup>

간행지나 간행자에 관한 기록은 없다. 그런데 순조 32년(1832)경에 편찬된 『慶尙道邑誌』의 <晉州牧邑誌>, <冊板> 條에 ‘在德川書院’으로 표시된 ‘守愚集’<sup>48)</sup>이 있고, 융희 4년(1910)경에 重印한 『守愚堂先生實記』에 수록된 晦峯 河謙鎭(1870-1946)이 융희 4년(1910) 5월에 지은 발문에도 책판이 덕천서원에 藏置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sup>49)</sup> 이 두 기록에서 언급한 책판이 이 책의 책판으로 추정된다. 당시 최영경 관련 저작은 이 책뿐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嶺湖列邑所在冊板目錄』, 『林園十六志』, 『鏤板考』 등 이 책의 간행 이후부터 『慶尙道邑誌』의 편찬 이전까지 작성되어진 여러 책판목록에서는 이 책판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책판은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다가 덕천서원으로 옮겨 藏置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다른 간행지나 간행자에 관한 분명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반면 책판은 덕천서원에 보관되어 있었던 점으로 보아, 덕천서원에서 간인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다.

간행년은 숙종 30년(1704)경으로 추정된다. 권말에 숙종 26년(1700) 1월에 양천익이 지은 발문이 있기는 하나, 권중에는 숙종 29년(1703) 12월 20일에 葛庵 李玄逸(1627-1704)이 쓴<sup>50)</sup> <行狀>도 수록되어 있어서 발문을 쓴 후에도 편집

46) 梁天翼 編, 『守愚堂先生實記』, 5卷2冊, 木活字本 (河東: 守正堂, 1936), 卷5 附錄, <舊跋>[梁天翼], 張46左.

“夫子之後孫廷奭 屬余撫遺事以示後 余泣涕而編之目 曰守愚堂實記.”

47) ‘규장각한국학연구원’ [cited 2012. 8. 21].

<[http://e-kyujanggak.snu.ac.kr/MOK/CONVIEW.jsp?type=MOK&ptype=list&subtype=sm&lclass=AL&mclass=&sclass=&ntype=hj&cn=GK08603\\_00](http://e-kyujanggak.snu.ac.kr/MOK/CONVIEW.jsp?type=MOK&ptype=list&subtype=sm&lclass=AL&mclass=&sclass=&ntype=hj&cn=GK08603_00)>.

48)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邑誌』, 一 慶尙道 編①(1982), 187.

49) 梁天翼 編, 『守愚堂先生實記』, 4卷2冊, 木活字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隆熙 4(1910)跋), 卷4 附錄, <[跋]>[河謙鎭], 張6左.

“先生實記一卷 藏于德川書院 ….”

50) 梁天翼 編(1936), 卷3 附錄, <行狀>[李玄逸], 張19.

“今上之二十九年十二月辛卯 載寧李玄逸狀.”

이 계속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51)</sup> <行狀>을 작성한 날짜를 고려한다면, 당년에 刊役을 마치기는 불가능하므로 그 이듬해에 와서야 비로소 인출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판본은 경기대학교 중앙도서관(등록번호: K108445),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古中 920.051 최64양),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B12 A53), 덕천서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 8603)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

② 「南冥先生文集」

南冥先生文集 / 曹植(朝鮮) 著. -- 木板本(重刊). --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正祖 23(1799)-建陽 2(1897)]

文集5卷5冊, 別集9卷3冊, 共8冊: 插圖, 四周雙邊 半郭 22.0 × 18.8 cm, 有界, 11行21字 註雙行, 內向2葉花紋魚尾

別集跋: 崇禎丙子(1636)二月日後學高陽朴綱謹識

別集跋: 崇禎十三年庚辰(1640)日南至後學晉陽河弘度謹跋

別集跋: 後學趙任道謹識

南冥 曹植(1501-1572)의 시문집이다.

영조 40년(1764)경에 교정한 「南冥先生文集」 책판을 이용하여 정조 22년(1798)에 인출한 책<sup>52)</sup>이 함양의 滿雪軒에 소장되어 있다.<sup>53)</sup> 이 만설헌 소장본은 문집 5권5책, 별집 9권3책 共8책으로 되어 있는데, 문집 권5 뒤표지 안쪽에 다음

51) ① 梁天翼 編(1936), 卷3 附錄, <行狀>[李玄逸], 張11-19.

② ‘규장각한국학연구원’ [cited 2012. 8. 21].

<[http://e-kyujanggak.snu.ac.kr/MOK/CONVIEW.jsp?type=MOK&ptype=list&ubtype=sm&lclass=AL&mclass=&sclass=&ntype=hj&cn=GK08603\\_00](http://e-kyujanggak.snu.ac.kr/MOK/CONVIEW.jsp?type=MOK&ptype=list&ubtype=sm&lclass=AL&mclass=&sclass=&ntype=hj&cn=GK08603_00)>.

52) 이 판본의 인출에 관해서는 필자가 이미 윤상기(2004. 2), 434-435에서 자세히 밝힌 바가 있다. 그러나 인출의 주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부분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기술하겠다.

53) 金侖壽(1992), 226.

과 같은 印藏記가 墨書되어 있다.

무오년에 直長 曹龍玩이 인출하여 芸閣에 粧潢을 부탁했는데, 표지에 제목을 쓴 이는 寫字官 李氏이다. 돌아와 守吾堂에 간직했다.<sup>54)</sup>

정조 22년(1798)에 조식의 후손인 德巖 曹龍玩(1763-1832)이 인출하여 校書館에 제본을 부탁했는데, 제본한 뒤 표제를 쓴 사람은 사자관 李氏이며, 돌아와서 守吾堂에 간직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조 초엽부터 전국에 책판 조사 보고를 명하여 그것을 취합하여 정조 20년(1796) 경에 徐有榘가 편찬한 『鏤板考』의 別集類上에도 ‘南冥集五卷’과 ‘別集九卷’이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책판 해제 중에는 ‘진주 덕천서원 藏, 缺, 印紙 15牒 10張<sup>55)</sup>’이라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缺’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설헌 소장본은 정조 22년(1798)에 인출한 책이고, 2년 전인 정조 20년(1796) 경에 편찬된 『鏤板考』의 기록에는 결된 책판이 덕천서원에서 소장하고 있다고 했다. 만약 만설헌에 소장되어 있는 책이 결된 상태로 덕천서원에 보관되어 있던 책판을 그대로 이용하여 찍어낸 것이라면, 그 책에서 ‘缺’에 관련된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만설헌의 소장본에는 모두 7장의 낙장이 있다. 문집 권1의 장7과 8, 권2의 장49와 50, 별집 권1의 장13, 권2의 장23과 24이다. 책판은 앞·뒤로 새겼을 것이므로, 곧 네 판의 책판이 빠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조 40년(1764)경에 개간한 책판이지만, 缺板 상태에서 인출함으로써 낙장이 생기게 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낙장이 제본과정의 실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낙장이 있음을 알고도 인출하여 결국 영조 40년(1764)경에 인출된 책과는 다른 모습을 지니게 된 별개의 판본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 판본은 위에서 든 목서 인장기에서 조용완이 인출하였다

54) 金侖壽(1992), 230에서 재인용.

“歲戊午 曹直長龍玩印出 以寄粧潢于芸閣 題面寫字官李姓人也 歸莊于守吾堂.”

55) 徐有榘 著; 洪命憲 校訂, 『鏤板考』, 7卷1冊, 鉛印本(京城: 大同出版社, 昭和 16(1941)), 鄭亨愚·尹炳泰 編著, 『韓國의 冊板目錄』, 下(서울: 保景文化社, 1995)(延世大學校 國學研究院 國學研究叢書 4), 1097.

“晉州德川書院藏 缺 印紙十五牒十張.”

고 밝히고 있듯이, 인출의 주체가 덕천서원이 아닌 조용완 개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렇게 판단한데에는 당시 조용완이 처한 사정도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정조는 과벌과 지역감정 해소에 노력하여 남인 정권을 등장시키기도 하고, 전라도의 河西 金麟厚(1510-1560)를 문묘에 배향하기도 하였으며, 여러 儒賢을 포장 致祭하는 한편, 그들의 후손을 특별히 등용하여 벼슬을 시키기도 하였다. 조식의 후손인 조용완이 벼슬한 것도 그 사례였다. 『正祖實錄』에 의하면 정조 20년(1796) 8월 13일에 정조는 文莊公 鄭經世(1563-1633)와 文貞公 조식에게 賜祭하였으며,<sup>56)</sup> 제문을 예조정광 閔廣魯(1749-?)가 가지고 가 9월 25일에 덕천서원에서 치제하였다. 그리고 이 치제 때 조용완도 參謁하였다.<sup>57)</sup> 그리고 사제 뒤에 조식의 후손 등용 명령이 내려 조용완이 정조 22년(1798) 10월에 敦寧府參奉에 임명되어 상경하게 된다. 앞서 기술한 만설헌 소장본에 있는 묵서 인장기를 고려한다면, 그는 임명되기 전에 덕천서원에 소장되어 있던 『南冥先生文集』 책판으로 인출하여 치제한 성문에 사례하고 중앙 관계에 널리 조식의 존재를 알렸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조 22년(1798)에 인출한 만설헌 소장본은 조용완 개인이 주체가 되어 인출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비록 그 책판이 덕천서원에 장치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덕천서원판본에서 제외하였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조식에 대한 정조의 사제는 정조 20년(1796)에 이루어졌지만, 그보다 2년 뒤인 정조 22년(1798)에 인출한 만설헌 소장본에는 賜祭文이 붙어 있지 않다. 그 때까지는 추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 이후 사제라는 영광스런 일을 길이 기념하고 남기기 위해 문집에 추각하였는데, 이 사제문을 한 장의 보관에 새기고 겹하여 기타 7장의 결판을 보완한 뒤 전질을 인출했을 것이다.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만설헌 소장본을 인출한当年에는 어려웠을 것이고, 그

56) 『正祖實錄』, 20年(1796) 8月 13日(乙酉)條.

“… 今見持平鄭宗魯疏 且其先文莊 豈無示意之舉乎 因又思之 文貞公曹植 規模氣像 可使儒夫立 而頑夫廉 克造奧處 所守卓爾 如今委靡 頹惰之俗 安得文貞來任砥礪磨礱之功 文莊公鄭經世·文貞公曹植家 以書下之祭文 遣官致祭.”

57) 趙輝晉 著, 『東窩遺集』, 4卷2冊, 木活字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壬戌(1922)序]), 卷3, 張15.

이듬해부터 순조 24년(1824)과 건양 2년(1897) 사이에 改刻이 있을 때까지의<sup>58)</sup> 사이일 것이다.<sup>59)</sup>

국립중앙도서관은 이 판본 중 5권으로 된 문집만을 소장하고 있는데,<sup>60)</sup> 권5 끝에 보판으로 인쇄된 사제문의 전문이 실려 있다. 덕천서원에서 간행한 것인지, 아니면 만설헌 소장본을 인출했던 조용완이 낙장이 있음을 불편하게 여겨 다시 보완하여 인출한 것인지 분명한 것을 알 수 없지만, 순조 32년(1832)경에 편찬된 『慶尙道邑誌』의 <晉州牧邑誌>, <冊板> 條에 ‘在德川書院’으로 표시된 ‘南冥集’<sup>61)</sup>과 고종 5년(1868)부터 同王 10년(1873)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書冊目錄』의 各邑所在, 晉州條에 ‘在德川書院’으로 所載되어 있는 ‘南冥集八卷 別集一卷’<sup>62)</sup> 등이 이 판본의 책판을 가리키는 것일 가능성이 있고, 또한 추정 간사년인 정조 23년(1799)부터 건양 2년(1897) 사이에는 덕천서원의 존속기간도 포함되므로 덕천서원에서 간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판본으로 다루었다.

### ③ 『南冥先生文集』

南冥先生文集 / 曹植(朝鮮) 著. -- 木板本(重刊). --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純祖 24(1824)-建陽 2(1897)]

本集5卷5冊, 別集9卷3冊, 共8冊 : 插圖, 四周雙邊 半郭 22.5 × 19.8 cm, 有界, 11行21字 註雙行, 花紋魚尾

別集跋: 崇禎丙子(1636)二月日後學高陽朴綱謹識

別集跋: 崇禎十三年庚辰(1640)日南至後學晉陽河弘度謹跋

別集跋: 後學趙任道謹識

58) 이 改刻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③ 『南冥先生文集』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59) 金侖壽(1992), 233-234.

60) 한古朝46-가522.

61)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邑誌』, 一 慶尙道 編①(1982), 187.

62) 『書冊目錄』, 1冊, 筆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高宗 5(1868)-高宗 10(1873)頃]), 鄭亨愚·尹炳泰 編著(1995), 1225.

別集校正跋: 崇禎三甲申(1764)孟冬日後學商山金墩謹書

別集校正跋: 崇禎三甲申(1764)孟冬日後學泰安朴挺新謹書

南冥 曹植(1501-1572)의 시문집이다.

순조 24년(1824)부터 건양 2년(1897) 사이에 본집에 추가했던 1장의 보관과 권5의 마지막 장을 없애고 ‘正宗大王親製賜祭文’이라고 明記한 2장의 보관을<sup>63)</sup> 조성하여 추가하였다. 바로 앞서 추가된 판본에서는 정조의 영광스런 사제문이 그냥 ‘賜祭文’으로 실려 있으므로, 시대가 바뀌면 어느 왕의 것인지 알기 쉽지 않고 또 應製가 아닌 親製라는 사실도 더욱 기념할 만 하였으므로 단순히 새긴 그 사제문 책판을 없애고 개각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별집에서는 두 가지를 삭제한 4장의 보관을 새로 조성하여 썼다. 삭제된 것 중 하나는 <年譜>의 조식 50세 경술조에 있는 卜小室事이고, 다른 하나는 권9 제19장에 있는 이현일이 지은 日新堂 李天慶(1538-1610)의 墓碣銘略이다.<sup>64)</sup>

간사년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몇 가지 기록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다. 우선 『卞誣錄』 제35장 <龍淵書院通道東文甲申二月七日>은 박인의 6대손인 訥叟 朴龍田(1765-1836)이 『南冥先生文集』의 별집에 대하여 험뜯은 것인데, 그 내용 중에는 별집에 수록된 이천경의 묘갈명략에 대한 것이 있어서 그 글이 작성된 순조 24년(1824) 2월 7일까지는 이천경의 묘갈명략이 별집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판본이 조성된 것은 그 이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 조성한 사제문의 제목에 ‘正宗大王’이라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고종이 光武皇帝로 등극하면서 정종대왕을 正祖宣皇帝로 추존한 광무 원년(1897) 10월 이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판본은 순조 24년(1824)부터 광무 원년(1897) 사이에 간인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sup>65)</sup>

간사자에 대해서도 분명한 기록은 없으나 추정된 간사년으로 보아 바로 앞서 추가된 판본과 마찬가지로 순조 32년(1832)경에 편찬된 『慶尙道邑誌』의 <晋州

63) 卷5의 57, 58張.

64) 金侖壽(1992), 233-234.

65) 金侖壽(1992), 234 참조.

牧邑誌>, <册板>條에 ‘在德川書院’으로 표시된 ‘南冥集’<sup>66)</sup>과 고종 5년(1868)부터 同王 10년(1873)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書冊目錄』의 各邑所在, 晉州條에 ‘在德川書院’으로 所載되어 있는 ‘南冥集八卷 別集一卷’<sup>67)</sup> 등이 이 판본의 책판을 가리키는 것일 가능성이 있고, 또한 위의 판본과 마찬가지로 추정 간사년인 순조 24년(1824)부터 건양 2년(1897) 사이에는 덕천서원의 존속기간도 포함되므로 덕천서원에서 간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판본으로 다루었다.

판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 1362)과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古 181.163 조59ㄴ)에서 소장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본을 韓國學文獻研究所에서 1981년에 영인하여 널리 보급하였는데,<sup>68)</sup> 편집하면서 원본에는 없는 정인홍의 序와 行狀, 神道碑銘 그리고 광무 원년(1897)경 간본<sup>69)</sup>의 續集<sup>70)</sup>을 모두 포함시켰다.<sup>71)</sup>

## 4.2 西溪書院

현위치: 慶尙南道 山淸郡 山淸邑 池里 518번지

창 건: 宣祖 39년(1606)

배향자: 吳健(1521-1574) / 吳儻(1546-1589) · 吳長(1565-1616) · 朴文樸(1570-1623)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인 德溪 吳健(1521-1574)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66)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邑誌』, 一 慶尙道 編①(1982), 187.

67) 『書冊目錄』([高宗 5(1868)-高宗 10(1873)頃], 鄭亨愚·尹炳泰 編著(1995), 1225.

68) 曹植 著, 『南冥先生文集』, 曹植 等著;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南冥集·德溪集·介庵集·玉洞集·篁岳集·大笑軒集·禮谷集·覺齋集』(서울: 亞細亞文化社, 1981) (李朝中期思想叢書), 1-302.

69) 이 판본은 덕천서원이 고종 8년(1871)에 훼손된 후에 산청의 산천재에서 간행한 것이기 때문에 서원판본으로 볼 수 없어서 본고의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판본에 대해서는 필자가 윤상기(2004. 2), 435-436에서 간략히 정리해둔 바가 있다.

70) 뒤에 수집한 詩文으로 되어 있다.

71) 曹植 等著, 韓國學文獻研究所 編(1981), <南冥集(附 德溪集 등) 解題>, 5 참조.

선조 39년(1606)에 오건의 수제자인 寒岡 鄭述(1543-1620) 등에 의하여 창건되었다. 숙종 3년(1677)에 사액서원이 되었지만,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고종 5년(1868)에 훼철되었다. 1921년에 복원하면서 守吾堂 吳儻(1546-1589)·思湖 吳長(1565-1616)·龍湖 朴文樞(1570-1623)을 慶尙南道 山淸郡 生草面 下村里의 西湖書院에서 이곳으로 移安하였다. 오장은 오건의 長子이고 오한은 오건의 從弟이면서 오장을 가르친 스승이기도 하다. 박문영은 본관이 潘南으로 조식의 私淑人이다. 배향자 네 사람 모두 산청에서 활약한 인물들이다.

이 서원은 1983년 8월 6일에 경상남도문화재자료 제49호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藏板閣에 보관되어 있는 「德溪先生文集」, 「思湖先生文集」 및 「守吾堂先生實紀」의 책판 총 132매는 ‘德溪先生文集冊板및思湖集守吾堂實紀冊板’이란 이름으로 1979년 12월 29일에 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163호로 지정되었다.

간행이 확실한 판본은 없고, 관련 기록 등을 고려할 때 이 서원에서 간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판본으로는 아래의 4종이 있다.

① 「德溪先生文集」

德溪先生文集 / 吳健(朝鮮) 著. -- 木板本(初刊). --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顯宗-英祖年間(1663-18c初)]

8卷4冊: 四周雙邊 半郭 20.1 × 16.8 cm, 有界, 11行20字 註雙行, 內向2葉 花紋魚尾

德溪 吳健(1521-1574)의 시문집으로 초간본이다.

이 판본에는 간행사항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서문이나 발문이 없어서 다른 여러 기록을 통해서 간행사항을 추정해볼 수밖에 없다. 먼저 간행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기록들을 이용하여 간행시기를 추정한 몇 가지 견해들이 있었는데, 吳主煥은 「山淸鄉土史」에서 서계서원이 사액되는 숙종 3년(1677)경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고,<sup>72)</sup> 鄭羽洛은 “「德溪集」 解題”에서 1600년대 후반인 현종

연간이나 숙종 초년으로 추정하였으며,<sup>73)</sup> 安榬은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문집 총간해제>에서 18세기 초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는 견해를 밝혔다.<sup>74)</sup> 그리고 전북대학교도서관에서 발행한 『古漢籍解題』에서는 영조초 초에 처음 간행된 듯하다고 하였다.<sup>75)</sup> 이들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간행시기는 대체로 저자의 문인 謙齋 河弘度(1593-1666)가 연보를 편차하고 문집을 수정한 현종 4년(1663)부터 1700년대 초반 사이가 될 것이다.<sup>76)</sup>

간행자에 관해서는 『永嘉言行錄』에 東溪 權濤(1575-1644)가 인조 20년(1642)에 서계서원으로 가서 『德溪先生文集』의 교정을 보았다는 기록과<sup>77)</sup> 『謙齋先生文集』의 연보에 하흥도가 서계서원의 山長으로 있을 때 山陰<sup>78)</sup>과 咸陽 두 고을의 선비들이 문집을 이정하고 연보를 편차해 달라고 청하였다는 기록<sup>79)</sup>을 통해 서계서원이 이 판본의 간행에 일부 간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林園十六志』<sup>80)</sup>와 『鏤板考』<sup>81)</sup>의 장판기록을 통해서 이 판본의 책판이 서계서원에 장판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간행의 주체는 『謙齋先生文集』의 연보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흥도에게 문집의 이정과 연보의 편차를 청한 산음과 함양

72) 吳主煥, 『山淸鄕土史』 (서울: 泰一出版社, 1995), 182, 주)91.

73) 鄭羽洛, “『德溪集』 解題,” 『南冥學研究』 第10輯(2000), 368.

74) ‘한국고전종합DB’ [cited 2012. 8. 25].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H&url=/itkcdb/text/nodeViewIframe.jsp?bizName=MH&seojiId=kc\\_mh\\_a175&gunchalId=&munchelId=&finId=&NodeId=&se tid=10103791&Pos=0&TotalCount=3&searchUrl=ok](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H&url=/itkcdb/text/nodeViewIframe.jsp?bizName=MH&seojiId=kc_mh_a175&gunchalId=&munchelId=&finId=&NodeId=&se tid=10103791&Pos=0&TotalCount=3&searchUrl=ok)>.

75) ‘德溪先生文集’ 金鍾冕 編, 『古漢籍解題』 第1輯: 史部·集部 ([전주]: 全北大學校圖書館, 1990), 117.

76) 윤상기, “『鏤板考』에 수록된 경남지역 서원 藏板: 서원 未刊板과 불확실판을 대상으로,” (2011. 12), 34-35.

77) 權正植, 『永嘉言行錄』 中 (서울: 해돋이, 1989), 2046.

78) 지금의 山淸.

79) 河弘度 著; 河性魯 等編, 『謙齋先生文集』, 木板本 ([河東]: [慕寒齋], 1912), 附錄 卷1 <年譜>, 張25左.

“編次德溪吳先生年譜 仍修正文集 … 先生時爲山長 而山咸兩邑之士 方開刊役 遂請釐正文集編次年譜.”

80) 徐有渠 編, 『林園十六志』, 筆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卷105, 怡雲志 7, 圖書藏訪, 京外鏤板, 鄭亨愚·尹炳泰 編著(1995), 887.

81) 徐有渠 等編(1941), 1105.

두 고을의 선비들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간행자에 대한 근래의 견해들을 살펴보아도, 정우락은 해제에서 간행자를 서계서원이라 하였고<sup>82)</sup> 安浬도 역시 해제에서 간행자를 서계서원의 院儒들로 표현하였지만,<sup>83)</sup> 둘 다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古今의 전거자료에서 서계서원 간행을 확정할만한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에, 서원관본으로 단정 짓지 않고 서원에서 간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관본으로 취급하였다.

이 관본의 책판은 서계서원의 장판각에 보관되어 있으며, 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163호로 지정되었다.

## ② 『思湖先生文集』

思湖先生文集 / 吳長(朝鮮) 著 ; 吳重瑞(朝鮮) · 姜堉基(朝鮮) 編. -- 木板本. --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哲宗 9(1858)頃]

8卷4冊 : 四周雙邊 半郭 23.2 × 18.1 cm, 有界, 10行20字, 內向2葉花紋魚尾

版心題: 思湖集

序: 上之四十四年戊戌(1718)孟冬崇政大夫行知中樞府事原任行禮曹判書兼判義禁府事知經筵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晉山姜覲序

序: 辛丑(1781)仲春嘉善大夫原任漢城府右尹兼五衛都摠府副摠管姜世晃謹書

跋: 上之五年辛丑(1781)通政大夫弘文館副提學東萊鄭志儉謹跋

82) 鄭羽洛(2000), 365.

83) ‘한국고전종합DB’ [cited 2012. 8. 25].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H&url=/itkcdb/text/nodeViewIframe.jsp?bizName=MH&seojiId=kc\\_mh\\_a175&gunchalId=&muncheId=&finId=&NodeId=&seid=10103791&Pos=0&TotalCount=3&searchUrl=ok](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H&url=/itkcdb/text/nodeViewIframe.jsp?bizName=MH&seojiId=kc_mh_a175&gunchalId=&muncheId=&finId=&NodeId=&seid=10103791&Pos=0&TotalCount=3&searchUrl=ok)>.

思潮 吳長(1565-1616)의 시문집이다.

권두에 있는 서·발문과 부록에 있는 행장의 내용을 통해 문집 간행의 경과를 대략이나마 알 수 있다. 숙종 44년(1718)에 저자의 玄孫 吳重瑞(1690-1744)와 外曾孫 姜垆基(?-?)가 저자의 遺文을 모아 3책으로 엮고 문집을 간행하려고 敬庵 姜錕(1650-1733)에게서 서문을 받았다.<sup>84)</sup> 그러나 이 때 문집이 곧바로 간행 되지는 않은 듯하다. 이로부터 63년 뒤인 정조 5년(1781)에 저자의 6세손 吳珽(1750-1815)이 조부 오중서 등이 수집해 둔 저자의 유문을 가지고 다시 강현의 아들 豹菴 姜世晁(1713-1791)에게 서문을 받고<sup>85)</sup> 澈齋 鄭志儉(1737-1784)에게 발문을 받아<sup>86)</sup> 부록을 첨부하여 4책으로 만들었으나, 이때도 역시 간행은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저자의 8세손 吳思鑣(?-?)이 유집을 가지고 凝窩 李源祚(1792-1872)에게 교정을 부탁하고,<sup>87)</sup> 철종 9년(1858)경에 이원조가 지은 행장 등 부록을 증보하여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간행지에 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으나 책판이 현재 서계서원에 장판되어 있고, 이 책의 저자가 이 판본이 간행될 당시 서계서원의 유일한 배향자인 오건의 장자임을 고려한다면 서원에서 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오장은 그 후 1921년에 서원이 복원될 때 오한과 박문영과 함께 서호서원에서 이곳으로 移安되었다.

책판은 『德溪先生文集』과 『守吾堂先生實紀』의 책판과 더불어 총 132매가 서계서원의 장판각에 보관되어 있으며, 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163호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다.

판본은 경상대학교 도서관(古(아천) D3B 오71 入),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84) 吳長 著 ; 吳重瑞 · 姜垆基 編, 『思潮先生文集』, 8卷4冊,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哲宗 9(1858)頃]), <思潮先生文集序>[姜錕], 張2右.

“公之玄孫重瑞 · 外裔姜生垆基 新從嶺外來 哀遺稿三冊以視之 仍索序文於不佞.”

85) 吳長 著 ; 吳重瑞 · 姜垆基 編(哲宗 9(1858)頃), <思潮先生文集序>[姜世晁], 張3右.  
“今先生六代孫珽將刊行是集 求不肖書此序.”

86) 吳長 著 ; 吳重瑞 · 姜垆基 編(哲宗 9(1858)頃), <思潮先生文集跋>[鄭志儉], 張2右.  
“公之六世孫珽 袖公遺集 乞跋于余.”

87) 吳長 著 ; 吳重瑞 · 姜垆基 編(哲宗 9(1858)頃), <行狀>[李源祚], 張23右.  
“日其後孫思鑣甫 奉遺集三冊及附錄一卷 請余讎校.”

((고) 811.081 오장사),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1 A3365), 국립중앙도서관(한  
古朝46-가91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 11991), 성균관대학교 존경  
각(D03B-2898),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고서(우천) 532 0, 고서(I) 811.98 오장  
사-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

1992년에 학민문화사에서 『守吾堂先生實紀』와 함께 영인하였다.<sup>88)</sup>

③ 「德溪先生文集」

德溪先生文集 / 吳健(朝鮮) 著 ; 柳尋春(朝鮮) 編. -- 木板本(重刊). --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純祖 29(1829)序]

8卷4冊, 年譜2卷1冊, 共5冊 : 四周雙邊 半郭 18.2 × 15.5 cm, 有界, 11行20字  
註雙行, 內向2葉花紋魚尾

年譜序: 歲己丑(1829)端陽節後學豐山柳尋春謹書

年譜跋: 崇禎後四丁亥(1827)海州吳熙常謹跋

德溪 吳健(1521-1574)의 시문집으로 原集은 앞에서 다룬 초간본의 책관을  
이용하고 연보와 보유는 새로 새겨 함께 인출한 것이다.

연보 권두에 있는 江臯 柳尋春(1762-1834)이 순조 29년(1829) 端陽節에 쓴  
<德溪集年譜序>에 의하면, 연보와 보유는 저자의 후손인 吳思德(?-?)과 伴間  
齋 李奇一(?-?) 등 一鄉의 士林이 발의하여 여러 기록에서 遺事를 모은 뒤 유심  
춘에게 편차를 부탁하였으며, 유심춘은 문집의 행장 등을 참고로 대조하고, 諸賢  
이 기록한 實蹟을 모으고, 知舊 門人의 挽誄 등을 더하고, 저자의 詩 13題를  
보유로 만들어 모두 2권으로 편차, 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sup>89)</sup>

88) 吳長, 『思湖先生文集』 (大田: 學民文化社, 1992).

89) 吳健 著 ; 柳尋春 編, 『德溪先生文集』,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純祖 29(1829)  
序]), <德溪集年譜序>[柳尋春].

“先生後孫與一鄉士林 謀所以哀集爲譜 屬尋春以編次之役 既不敢辭 謹就文集行狀中 考  
其年條事實 兼採一時諸賢所錄實蹟 草成一篇 又以知舊門人挽誄等篇次之 又得先生詩  
若干首 以爲補遺 合成二卷 … 幹其事者 先生後孫思德 鄉人李君奇一也.”

초판본의 원집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보아 간행은 초판본의 책관을 보관하고 있던 서계서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되나, 분명한 기록이 없으므로 간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취급하였다.

간사년은 순조 29년(1829)에 유심춘이 작성한 <德溪集年譜序>의 작성시기로만 추정된다.

책관은 『思湖先生文集』과 『守吾堂先生實紀』의 책관과 더불어 총 132매가 서계서원의 장관각에 보관되어 있으며, 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163호로 지정되었던 것은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46-가182)에서 소장하고 있다.

#### ④ 『守吾堂先生實紀』

守吾堂先生實紀 / 吳膺奎(朝鮮)·吳膺萬(朝鮮) 編. -- 木板本(初刊). --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高宗 1(1864)序]

47張 : 四周雙邊 半郭 20.0 × 17.0 cm, 有界, 10行18字 註雙行, 內向2葉花紋魚尾

被傳者: 吳儻(1546-1589)

序: 上之元年甲子(1864)重陽節豐山後人柳疇陸叙

序: 崇禎紀元後四癸亥(1863)清明節通訓大夫居昌都護府使眞城李彙廷謹序

跋: 通訓大夫陝川郡守兼晉州鎮管兵馬同僉節制使東萊鄭憲朝謹跋

跋: 八代祀孫[吳]膺奎謹跋

守吾堂 吳儻(1546-1589)의 전기를 기록한 실기이다.

권두와 권말에 있는 서·발문들을 통해 피전자의 8세손인 吳膺奎(?-?)와 吳膺萬(?-?)이 편찬했음을 알 수 있다.<sup>90)</sup>

90) ① 吳膺奎·吳膺萬 編, 『守吾堂先生實紀』, 47張,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간사지에 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으나 책판이 현재 서계서원에 장판되어 있고, 이 책의 피전자가 이 판본이 간행될 당시 서계서원의 유일한 배향자인 오건의 從弟이면서 나중에 함께 追享된 오장을 가르친 스승임을 고려한다면 서원에서 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오한은 그 후 1921년에 서원이 복원될 때 오장·박문영과 함께 서호서원에서 이곳으로 移安되었다.

간사년은 권두에 있는 고종 1년(1864)에 溪堂 柳疇睦(1813-1872)이 작성한 서문의 작성시기로만 추정된다.

책판은 『德溪先生文集』과 『思湖先生文集』의 책판과 더불어 총 132매가 서계서원의 장판각에 보관되어 있으며, 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163호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다.

판본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古 920.051 오91사),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고) 920.05153 오간오), 국립중앙도서관(古2511-52-16),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B9I 67)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

1992년에 학민문화사에서 『思湖先生文集』과 합쳐 영인하였다.<sup>91)</sup>

## 5. 판본의 성격

판본의 성격을 살펴보기 위해 전체 12종의 판본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면 <표 3>과 같다.

---

[高宗 1(1864)序], <守吾堂先生實紀序>[柳疇睦], 張6左.

“公之八代孫膺奎 奉公實紀一卷 以世誼責 疇睦一言以叙之.”

② 吳膺奎·吳膺萬 編([高宗 1(1864)序]), <守吾堂先生實紀序>[李彙廷], 張12左.

“今其後孫膺奎·膺萬 哀梓他家之爲先生述者 偏爲實紀一卷.”

③ 吳膺奎·吳膺萬 編([高宗 1(1864)序]), <跋>[鄭憲朝], 張1左.

“而先生八代孫膺萬甫之來 ….”

④ 吳膺奎·吳膺萬 編([高宗 1(1864)序]), <跋>[吳膺奎], 張3左.

“發潛闡幽之蹟 終不可泯 斤斤收輯 今始登梓 不肖忘其僭越 謹書顛末焉.”

91) 吳膺奎 [編], 『守吾堂先生實紀』(大田: 學民文化社, 1992).

<표 3> 산청의 서원판본과 서원 간인 가능 판본들의 성격

서원명	간인 여부	서명	저자/피전자	판종	간인시기	사부 분류	저자/피전자와 배향자의 관계
德川書院	간인	南冥先生學記類編	曹植	목판본	광해군 9(1617)	子部 儒家類	본인
		南冥先生集	曹植	목판본	광해군 14(1622)	集部 別集類	본인
		南冥先生集	曹植	목판본	현종 12(1671)경	集部 別集類	본인
		南冥先生文集	曹植	목판본	숙종 28(1702)	集部 別集類	본인
	南冥先生文集	曹植	목판본	영조 40(1764)발	集部 別集類	본인	
	간인 가능	守愚堂實記	崔永慶	목판본	숙종 30(1704)경	史部 傳記類	본인
		南冥先生文集	曹植	목판본	정조 23(1799) -건양 2(1897)	集部 別集類	본인
南冥先生文集		曹植	목판본	순조 24(1824) -건양 2(1897)	集部 別集類	본인	
西溪書院	간인 가능	德溪先生文集	吳健	목판본	현종-영조년간 (1663-18c초)	集部 別集類	본인
		思湖先生文集	吳長	목판본	철종 9(1858)경	集部 別集類	친족
		德溪先生文集	吳健	목판본	순조 29(1829)서	集部 別集類	본인
		守吾堂先生實紀	吳儻	목판본	고종 1(1864)서	史部 傳記類	친족

전체 12종의 판본들 중 1910년 경술국치까지 산청의 서원에서 간인한 것이 확실한 판본은 덕천서원에서 간인한 5종이다. 그리고 서원에서 간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판본은 덕천서원의 3종과 서계서원의 4종으로 모두 7종이다.

먼저 이들 판본들을 사부분류에 따라 분류해보면, 간인이 확실한 판본의 경우 전체 5종 중 4종이 集部の 別集類에 속하고 나머지 1종은 子部の 儒家類에 속하여 集部の 別集類가 80%, 子部の 儒家類가 20%를 차지한다. 그리고 간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판본 7종 중에서는 5종이 集部の 別集類이고 나머지 2종이 史部の 傳記類이므로, 集部の 別集類와 史部の 傳記類가 각각 71%와 29%를 차지한다.

다. 따라서 간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판본까지 포함한 전체 판본 중에서는 集部の 別集類가 9종으로 75%, 史部의 傳記類가 2종으로 약 17%, 子部의 儒家類가 1종으로 약 8%를 차지한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에 산청의 서원들에서는 集部の 別集類인 문집을 주로 간인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版種에 대해서 살펴보면, 간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판본까지 포함한 전체 12종의 판본이 모두 목판본이다.

그리고 간인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간인한 것이 확실한 판본은 17세기에 3종, 18세기에 2종이 각각 간인되었고, 간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판본은 17세기에 0~1종, 18세기에 1~3종, 19세기에 4~5종이 각각 간인되었다. 따라서 간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판본까지 포함하면 전체 12종의 판본 중 4~5종이 19세기에, 3~5종이 18세기에, 3~4종이 17세기에 각각 간인되어, 간인활동이 3개 세기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판본의 저자 혹은 피전자와 배향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서계서원에서 간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판본 2종만 저자 혹은 피전자가 배향자의 친족들로서 간접적인 관계를 가질 뿐, 나머지 10종의 판본은 저자 혹은 피전자가 모두 배향자 본인들로서 직접적인 관계에 있다. 따라서 판본의 저자 혹은 피전자와 배향자의 관련성은 매우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서원들이 서원의 기본적인 두 가지 주요 기능인 강학과 제향의 기능 때문에 배향자와 관련이 있는 서적들을 많이 간인한다는<sup>92)</sup> 주지의 사실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 6. 나오면서

지금까지 1910년 경술국치 당시의 경남 산청군에 소재했거나 소재한 적이 있었던 서원들에서 그때까지 간인했거나 간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판본들을 살펴왔다. 조사된 바로는 그 중 간인사실이 확실한 것은 5종으로 덕천서원의 『南冥先

92) 윤상기(2005. 12), 267.

生學記類編』, 『南冥先生集』(1622), 『南冥先生集』(1671頃), 『南冥先生文集』(1702) 및 『南冥先生文集』(1764跋)이고, 간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판본은 7종으로 덕천서원의 『守愚堂實記』, 『南冥先生文集』(1799-1897) 및 『南冥先生文集』(1824-1897)과 서계서원의 『德溪先生文集』(1663-18c초), 『思湖先生文集』, 『德溪先生文集』(1829序) 및 『守吾堂先生實紀』이다. 이들 판본들에 대해서는 서지사항을 정밀기술하고 서원판본임을 밝히거나 간인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리고 전체 12종의 판본들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들을 밝혀냈다.

첫째, 集部の 別集類가 9종이고 史部の 傳記類가 2종, 子部の 儒家類가 1종으로 集部の 別集類가 대다수이다.

둘째, 모두 목판본이다.

셋째,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3개 세기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간인되었다.

넷째, 10종의 판본의 저자 혹은 피전자가 관련 서원의 배향자 본인들이고 2종의 판본의 저자 혹은 피전자만 배향자의 친족들로서, 모두 관련 서원의 배향자들과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다.

앞으로 꾸준한 자료발굴을 통하여, 간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7종의 판본들에 대한 분명한 간인여부 확인과 새로운 서원판본들을 찾아내는 일이 과제로 남아 있다.

## <참고문헌>

경남의 통계. <<http://stat.gsnd.net>>.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

문화재청. <<http://www.cha.go.kr>>.

산청군 - 청정골 산청. <<http://www.sancheong.ne.kr>>.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朝鮮王朝實錄』.

- 『朝鮮の姓』. 複製本. 서울: 民俗苑, 1989.
- 權正植. 『永嘉言行錄』中. 서울: 해돋이, 1989.
- 金侖壽. “『南冥集』의 冊板과 印本の 系統.” 『南冥學研究』 第2輯(1992). 205-255.
- 金侖壽. “南冥集 板本 研究上の 爭點.” 『南冥學研究』 第6輯(1996). 11-42.
- 金鍾冕 編. 『古漢籍解題』 第1輯: 史部·集部. [진주]: 全北大學校圖書館, 1990.
- 박병련 외. 『南冥學派와 嶺南右道の 士林』. 서울: 예문서원, 2004.
-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지음. 『서원, 한국 사상의 숨결을 찾아서』. 서울: 예문서원, 2000. (동양문화산책 10).
- 梁天翼 編. 『守愚堂先生實記』. 4卷2冊. 木活字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隆熙 4(1910)跋.
- 梁天翼 編. 『守愚堂先生實記』. 5卷2冊. 木活字本. 河東: 守正堂, 1936.
- 吳健 著, 柳椰春 編. 『德溪先生文集』. 木板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純祖 29(1829) 序].
- 吳膺奎 [編]. 『守吾堂先生實紀』. 大田: 學民文化社, 1992.
- 吳膺奎·吳膺萬 編. 『守吾堂先生實紀』. 47張. 木板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高宗 1(1864) 序].
- 오이환. “『南冥集』 重刊本の 성립.” 『철학논총』(새한철학회) 제32집 제2권(2003. 4). 3-50.
- 吳二煥. “南冥集板本考(I): 來庵刊本을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韓國思想史學會) 第1輯(1987). 171-205.
- 吳二煥. 『南冥學派研究』 上卷. 진주: 남명학연구원출판부, 2000.
- 吳長 著, 吳重瑞·姜堉基 編. 『思湖先生文集』. 8卷4冊. 木板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哲宗 9(1858) 頃].
- 吳長. 『思湖先生文集』. 大田: 學民文化社, 1992.
- 吳主煥. 『山淸郷土史』. 서울: 泰一出版社, 1995.
- 윤상기. “『鏤板考』에 수록된 경남지역 서원 藏板: 서원 刊板을 대상으로.” 『書誌學研究』 第50輯(2011. 12). 187-230.

- 윤상기. “『鏤板考』에 수록된 경남지역 서원 藏板: 서원 未刊板과 불확실판을 대상으로.” 『書誌學報』 第38輯(2011. 12). 5-52.
- 윤상기. “경남 함안의 서원판본에 대한 연구.” 『書誌學研究』 第44輯(2009. 12). 301-330.
- 윤상기. “경남 함양군의 서원판본에 대한 연구.” 『書誌學研究』 第32輯(2005. 12). 237-271.
- 윤상기. “山淸 德川書院版本考.” 『東義論集』(東義大學校) 第40輯, 人文·社會科學篇(Ⅰ)(2004. 2). 423-443.
- 李樹健.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서울: 一潮閣, 1995.
- 이수건. 『한국의 성씨와 족보』.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한국의 탐구 25).
- 李昌鎬 편, 金尙祚 역. 『국역(國譯) 진양지(晉陽誌) (Ⅱ)』. [진주]: 진주문화원, 1986.
- 鄭羽洛. “『德溪集』 解題.” 『南冥學研究』 第10輯(2000). 365-384.
- 鄭亨愚·尹炳泰 編著. 『韓國의 冊板目錄』 下. 서울: 保景文化社, 1995. (延世大學校 國學研究院 國學研究叢書 4).
- 曹植 著, 曹垣淳 編. 『南冥先生文集』. 11卷6册. 木板本. [德山]: [山天齋], [光武元(1897)頃].
- 曹植 著. 『南冥先生文集』. 曹植 等著,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南冥集·德溪集·介庵集·玉洞集·篁岳集·大笑軒集·禮谷集·覺齋集』.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1. (李朝中期思想叢書). 1-302.
- 曹植 著. 『南冥先生集』. 3卷1册. 木板本. [陝川]: [海印寺], [宣祖 35(1602)-宣祖 37(1604)頃].
- 曹植 著. 『南冥先生集』. 4卷3册. 木板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光海君 1(1609).
- 趙輝晉 著. 『東窩遺集』. 4卷2册. 木活字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壬戌(1922)序].
- 河弘度 著, 河性魯 等編. 『謙齋先生文集』. 木板本. [河東]: [慕寒齋], 1912.

書誌學研究 第52輯(2012. 9)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邑誌」, 二 慶尙道 編①. 影印本.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2.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邑誌」, 二 慶尙道 編②. 影印本.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2.